

전 남

유가급등 어획부진에 한파까지...

조업 포기 속출 어민들 한숨만

최근 유가급등과 어획부진, 한파 등으로 인해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면세유 값이 크게 오르고 고기도 잘 잡히지 않아 적자조업에 시달린 어민들이 출어를 포기하고 있는데, 남해안 일원의 양식장은 저수온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면세유값이 오르자 어민들은 외상으로 기름을 넣고 출어해 돈 대신 잡은 생선으로 갚는 진풍경도 벌어지고 있다. 근해 안강망어선은 척당 30~40드럼을 싣고 출어에 나서 유류비만 전체 조업비용의 절반정도인 500만~700만원에 이르고 있다.

한파로 인해 수온이 낮아져 조업에 나서지만 요즘 어장 상황이 최악이어서 고기마저 잘 잡히지 않아 출어 포기 선박이 늘고 있다. 출어 어선은 척당 당게는 200만원에서 적게는 70만원 정도를 잡아 출어(2000만원)도 건지지 못하는 적자 조업을 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추위에 약한 동류는 8도 이하로 내려가면 소화 등 생리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 폐사하기 때문에 먹이공급을 중단하고 가두리를 깊은 수심으로 침하시켜주거나 수온이 비교적 높은 외해선 어장이나 월동장으로 옮겨 양식하라고 당부했다.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관광객 1000만명 시대 연다

정기호 영광군수

“더 큰 도전이 더 큰 희망을 만들어 낸다는 자신감으로 ‘글로벌(Glory) 영광, 대한민국 1등 군 영광’을 만들어 가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호 영광군수는 “영광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전과 성장을 통해 국가경쟁력 최고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올해는 그동안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1등 군’의 목표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화도 바다매체 타워를 건립해 관광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회간접자본 시설(SOC)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펼쳐겠다”고 말했다.

강진군, 연소득 1억 이상 100어가 육성

2013년까지... 고품질 수산물 생산 집중 지원



강진군은 연소득 1억원 이상 어민을 현재 80여가(漁家)에서 오는 2013년까지 100 여가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군은 어민소득 증대를 위한 정밀 조사를 오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30여일 동안 1억원 이상 어가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업 등 어업형태별로 위판량과 위판액, 생산량, 판매액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전년도 1억원 이상 어가를 먼저 파악한다.

또 구조개선중인 미역, 다시마, 김 등 해조류양식장을 전복양식장으로 전환하고, 경쟁력과 기호도가 높은 매생이와 토하 등 친환경 토산 어종의 양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새 얼굴

“국민중심 현장제일 치안 구현”

이윤 장성경찰서장



“공정하고 청렴한 경찰살상을 정립하고, 친서민 치안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1일 부임한 이윤(57) 장성경찰서장은 “공권력 침해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으로 국민중심, 현장제일 치안을 구현하겠다”며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정책의 실현과 부패비리를 척결하는 등 7대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군민에게 공감받는 치안을 확보 하겠다”고 밝혔다.

해남 출신인 이서장은 광주일고와 경희대 법학과·경희대 대학원, 상군관대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1985년 간부후보(33기)로 경찰에 첫발을 내딛은 후 광주경찰청 경무과장, 북부서장, 전남경찰청 경무과장 등을 역임했다. /충무취재본부=김용훈기자



도 농기원, 폭설피해 복구 나서

전남도 농업기술원 직원들이 최근 지속된 폭설로 피해를 입은 나주시 산포면 시설하우스 재배농가를 찾아 찢어진 비닐을 제거하고 있다. 도 농업기술원은 각종 재해가 발생했을 때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현장기술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제공>

투자유치·기업지원 강화

용·복지가 선순환 되는 ‘선진도시 건설의 해’로 정하고 이를 위한 밑그림으로 ▲투자유치 활동강화 ▲관광영광의 시대 구축 ▲농어민 소득증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군민의 ‘삶의 질’ 향상 ▲공직기강 확립 등 주요 7대 시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 군수는 우선 “지역의 미래가 투자유치에 달려있다는 신념 아래 투자유치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신설된 투자 유치과를 통해 투자유치, 기업 지원, 산업단지 조성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

한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 정 군수는 “스포츠와 관광·문화산업을 연계·육성해 ‘관광영광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화예술회관과 친환경 대중교통장 조성 등 본격적으로 추진해 문화와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고 맞춤형 관광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정 군수는 “신상필벌의 원칙 아래 공직기강을 확립, 공무원의 관행적인 비리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깨진 유리창 같은 사소한 일이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경계를 교훈삼아 더욱 군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 거듭나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

클러스터사업단, 농식품 수출 전진기지 부상

곡성 멜론·보성 녹차 등을 500만달러 목표

전남도가 지역 농산물의 시장지배력 확보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광역클러스터’ 사업단이 농식품 수출 전진기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7개 광역클러스터사업단에 대한 2010년 수출실적을 조사한 결과 수출액이 59만 달러로 2009년(38만 달러)에 비해 55%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7개 광역클러스터 사업단 가운데 곡성멜론 클러스터사업단이 대만·일본·말레이시아 등지로 45만 달러여치를 수출한 것을 비롯해 ▲한평과화농업 클러스터사업단 6만5000 달러 ▲구례산수유 4만 달러 ▲보성 녹차 1만6000달러 ▲무안고구마 1만 달러 ▲영암무화과 9000달러 ▲전남 딸기 8000달러의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전남딸기의 경우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저장기술이 부족해 해외수출이 미진했으나 지난해 2009년 광역클러스터사업자로 지정되면서 품종개발과 저장방법 등을 연구, 지난해 성과를 일본에 처녀수출했다. 전남도 조영익 경영기획담당은 “올해 해외의 판권진 개척과 수출시장별 유형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 500만 달러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featuring a table of property listings with columns for location, area, price,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a logo for Asset Korea since 2005 and contact details for branches in Gwangju and Seoul.